

## Ⅱ. 해협권 뉴스

1. 한일해협권연구기관 협의회 2004년 정기총회 개최
2. 각 지역 뉴스
  - 후쿠오카현
  - 사가현
  - 나가사키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광주·전남권
  - 경남권
  - 제주도
3. 제13회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개최

## 1. 한일해협권연구기관 협의회 2004년 정기총회 개최

2004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한·일해협권연구기관 협의회 2004년도 정기총회가 한·일의 연구기관의 대표자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첫날 총회에서 2004년도 사업보고, 임원의 개선, 2005년도의 사업계획, 차기총회 개최지 결정, 해협권연구지 발간 등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틀째 오전은 전남대학교 임영진교수의 「고대 한일교류사의 재조명」 학술강연이 있었고, 2004년도 연구과제 발표회가 개최되어 한일투자협정과 해협권의 경제관계 등 6개 과제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오후에는 현대삼호중공업과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유달산 등의 관광시찰을 하였으며, 다음날은 희망신청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관람 등 양국간 문화교류협력과 한·일교류 강화 등 이해증진에 서로가 노력하였다.



## 2. 각 지역 뉴스



### 히비키컨테이너터미널 개항

키타큐슈시 와카마츠구 히비키나다지구의 정비를 추진해 온 히비키컨테이너터미널(히비키CT)이 금년의 4월 1일에 개항했다.

히비키CT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에 가깝고 중국의 컨테이너 취급량의 증대와 함께 주류화하고 있는 동해 루트의 온 더 웨이에 위치한다고 하는 컨테이너 수송에 최적의 위치에 있다.

또한 이 히비키CT는 동해쪽에서 유일한 오버파나막스형 컨테이너선의 착안이 가능한 수심 15m의 암벽을 가진 차세대 고규격터미널이라는 것 때문에 서일본이나 황해권에서 발생하는 북미 및 유럽행 컨테이너화물을 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히비키CT의 배후에는 값싸고 광대한 산업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 산업용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공급, 토지이용의 유연성등 다양한 규제완화를 가진 국제물류특구로 국가로부터 지정되어 있다. 게다가 키타큐슈시 독자의 보조금제도도 기업진출에 적용된다.

이러한 히비키CT는 많은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메가 터미널 오퍼레이터인 PSA사(본사: 싱가포르)는 히비키CT에 사업참가를 결정했다.

사업수법에 대해서도 민간의 자금력이나 뛰어난 경영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활용 할 수 있는 PFI수법을 도입하여 일본의 항만개혁을 선도적인 수법으로 국제경쟁력을 높고 있는 것이다.

이 선도적인 수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모체로서 작년 1월, PSA사와 일본의 대형 항운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히비키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PFI사업자※)가 설립되었다.

키타큐슈시는 PFI사업자와 일체가 되어 금후 히비키CT에 많은 컨테이너화물을 집하하고 항로망을 충실히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히비키CT를 활용함으로써 히비키CT의 배경에 있는 광대한 산업용지에 국내외의 물류관련기업이나 가공조립형기업 등의 입지가 지전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나 고용 창출 등 히비키CT와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히비키CT가 새로운 국제물류창출의 기폭제가 되어 국제물류의 로지스틱 센터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항만, 도로, 청사 등 공공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민간자금과 운영노하우를 활용해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주도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수법



## 사가현

### 사가성혼마루역사관 개관

2004년 8월 1일 사가성혼마루역사관이 사가시 성내에 개관하였다. 이 역사관은 1838년에 나베시마 나오마사(사가번 10대번주)가 재건한 사가성혼마루어전의 일부를 충실히 복원한 것으로 그 넓이는 2,500m<sup>3</sup> 이고 목조 복원물로서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당시 사가번藩의 공식행사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던 소토고서원(外御書院)이라고 불리는 320타다미(160평)의 넓은 공간을 시작으로 역사관은 복원한 건물의 내부를 전시공간으로서 활용해서 사가성의 변천이나 혼마루어전의 복원과정 일본근대화의 기초를 쌓은 사가번의 위인들이나 과학기술 등이 소개되어 있다.

당초 2005년 3월 31일까지는 75,000명을 예상하고 있던 입장객은 약243,00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근린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수학여행등 단체여행자를 포함해서 500명을 넘어서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교육 및 문화면에서 공헌함은 물론이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 사가시 한국기업과 행정시스템을 공동개발

사가시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사업의 기간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내의 유명 메이커의 메인 프레임(대범용 컴퓨터)을 채용해 왔지만 메이커측이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이나 제도의 개정과 지역정보등의 개정 및 변경시에 생기는 프로그램의 변경시도 다른 메이커가 참여할 수 없어 작은 변경도 메이커측이 제시한 고액의 유지보수 및 개수비용을 계속 지불해 왔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둘러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사가시도 지출삭감이 절실한 과제가 되어 있고 비용삭감을 위해서 메인 프레임으로부터 소형 서버를 핵으로 한 시스템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경쟁원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하드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기간시스템의 개발에 즈음하여 사가시는 종래의 국내 대형컴퓨터 메이커가 아니라 효율성을 중시하여 오픈 시스템에 실적이 있는 한국의 삼성SDS를 선택했다.

사거시에 국한하지 않고 현재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의 유명메이커의 메인 프레임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거시의 방식은 금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독점상태에 있던 분야에 외국기업의 참여에 따라 국내 메이커의 경쟁력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임은 틀림없다.

### 나가사키현

#### 큐슈신칸센 나가사키 노선 착공결정

2004년 12월 16일 정부와 여당은 정비신칸센검토위원회에서 나가사키신칸센(다케오-이사하야 구간)의 착공에 정식합의함과 동시에 후리게지트레인(궤간가변전차)방식에 의한 정비를 목표로 하고 나가사키역의 주변조사를 결정하였다. 단 병행재래선구간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나가사키현의 협력을 얻어 사거현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빠른 시일내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정이 완료된 경우에 착공하기로 되어 완성시기에 대해서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정비신칸센정비재원은 2013년도 이후의 신칸센양도수입(신칸센정비충당분)에 한하여 앞당겨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지방공공단체는 앞당겨 활용한 신칸센양도수입액의 2분의 1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선로폭이 다른 신칸센과 재래선의 양방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프리게이지트레인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산요신칸센 등의 본선을 사용한 주행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프리게이지트레인방식의 도입에 따른 직접이익이 홋가이도신칸센 및 호쿠릿쿠신칸센의 약1.4배를 크게 상회하여 1.8배라고 하는 높은 효과가 시산되고 있어 비즈니스나 관광에 한층 더 편리성향상과 관광진흥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로운 나가사키시와 새로운 이사하야시가 탄생

2005년 1월 4일 나가사키시(市)와 니시소노기6정(町 : 코우야기, 이오우지마, 타카시마, 노보자키, 소토메, 상와)가 합병해서 새로운 나가사키시시가 발족했다. 헤이세이(平成)의 대합병에서는 대마도, 이끼, 고토우의 각시와 신카미고토우정에 이어 현내의 5번째로 본토지구에서는 본현 최초의 새로운 시가 탄생하여 현내의 자치단체수는 10시(市) 45정(町) 1촌(村)이 되었다. 헤이세이의 대합병에서는 현내 최초로 편입방식을 채용하였다. 인구는 3만명정도 증가해서 약44만 8천명(작년 3월말 현재) 면적은 1.4배의 약338평방킬로미터 넓어졌다. 동시는 합병 후의 지역만들기에 있어서는 과거의 지역자원을 살린

제1차산업의 진흥을 들고 있지만 이케시마(소토우미정)나 군칸지마 로서 알려져 있는 하시마(다카시마정)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이미 시작되고 있어 침체해 있는 나가사키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운도 높아지고 있다.

2005년 3월1일 이사하야시와 니시소노기다라미정, 기타다카모리야마, 이이모리, 코우라이, 코나가이정 등의 현중앙지역 1시5정이 대등합병하여 새로운 이사하야시가 발족하였다. 신시발족으로 현내의 자치단체수는 10시 40정 1촌이 되었다. 이사하야시는 현내의 헤이세이의 대합병에 의해 나가사키시와 주변지역에 합병에 이어 6번째로 신시가 되어 인구는 14만 4,894명(2005년 1월1일 현재) 면적은 약312평방 킬로미터로 넓어졌다.

시정촌합병은 지방분권의 추진과 고령화에의 대응 그리고 다양한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행정 및 재정기반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합병특례법의 기한인 2005년도말까지 합병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본현의 자치단체수는 13시 10정이 될 전망이다.

## 부산광역시

### 부산에서 통합증권선물거래소 공식 출범

통합증권선물거래소가 2004년 9월 30일 부산에서 공식 출범한다. 또 선물회사들은 당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더 연장된 선물영업 전업권을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2004년 7월 2일 재정경제부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재정부 주관으로 1일 열린 한국증권거래소 설립 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 통합거래소 창립총회 개최와 동월 30일 통합거래소 공식 출범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설립위원회는 또 각 시장의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합병비율을 결정하기로 한 합병계약서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통합 대상인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선물거래소, 증권업협회 일부(코스닥위원회)의 합병비율은 각각 82:12:4:0.7이 된다.

부산일보, 2004년 7월 2일

### ‘부산 유비쿼터스 시티’ 추진본부 개소

차세대 지능형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미래형 유비쿼터스 도시가 부산에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05년 5월 12일 부산광역시장과 KT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최초의 도시 유비쿼터스화 프로젝트로 2010년까지 1조원이 투입될 ‘부산 U-시티’ 마스터 플랜

및 실행계획 착수보고회와 추진본부 개소식을 시청에서 가졌다.

보고회에서 부산광역시 등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부산시는 물론 부산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부산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부산U-시티 태스크포스팀’을 비롯해 KT의 ‘U-시티 전담팀’, IBM컨설턴트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공동작업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공동작업팀은 부산광역시의 현황분석과 선진사례 벤치마킹, 기술경향 분석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의 유비쿼터스도시 비전을 설정하고 발전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10월경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기술적 사양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과 2010년까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부산광역시와 KT는 설명했다.

부산U-시티 전담사업자인 KT는 부산항을 교통과 연계한 차세대 유비쿼터스 항만으로, 벡스코(BEXCO)는 유비쿼터스를 체험할 수 있는 컨벤션 및 전시센터로 구체화하는 등 항만과 교통, 컨벤션 등 3가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했으며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의료와 교육, 행정, 환경 등의 새로운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2005년 5월 13일

### 부산광역시, 2020 부산발전 전략 로드맵 책정

부산광역시장은 2005년 5월 26일,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심포지엄’에서 ‘부산을 바꾸자-세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주제로 한 기초발표를 통해 부산의 도시비전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밝혔다.

2020년 부산의 미래상으로 △경제적 자립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즐거움이 있는 도시(사람·자연·과학·문화의 조화) △지속가능한 도시(개인·사회의 건강과 복지 보장, 문명과 환경 공존) △세계로 향한 열린도시를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도시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아의 해양수도’로 하고, 도시목표를 ‘국가남부경제권 중추도시’, ‘동북아 문화·과학중심도시’, ‘세계자유 거점도시’로 하였다.

기능적 공간의 재배치로는 내륙·해양·낙동강 등 3개 벨트를 특성화할 계획이다. 내륙벨트(중추관리축)는 행정, 정보·금융, 유통거점으로, 해양벨트(해양개방축)는 해양 과학, 관광, 영상, 무역거점으로, 낙동강벨트(성장동력축)는 신산업, 항만·항공·물류거점 역할을 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7대 프로젝트는 우선 내륙벨트와 관련해 △부산을 세계 최초의 U-City로 만들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문화도시부산 프로젝트’를 통하여 부산이 문화·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며 △



부산의 넓은 지역을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해양벨트와 관련해서는, △북항지역을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이 만나는 동북아의 관문(Asian Gateway)으로 발전시키고 △동부산지역은 관광·레저·휴양시설이 어우러진 세계적 테마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낙동강벨트와 관련해서는, △서울 강남권 개발에 버금가는 낙동강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부산시대를 열어 나가고 △부산을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한국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가칭)‘부산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부산일보, 2005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 국립대학교 설립

인구규모에 비하여 종합대학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인적자원의 유출이 심화되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울산광역시에 국립대학교의 신설이 결정되었다. 울산지역 산업의 특성이 반영되는 대학의 설립으로 지역교육인프라 구축과 산업수도 울산건설을 위한 유능한 인재양성, 울산발전을 위한 재도약의 기틀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립대학교 건립추진을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입지와 대학의 특성분야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 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 개발

2004년 고속철도 울산역사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에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을 착수하였다. 2005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들어가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0년까지 연결도로망 건설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역세권을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인구 유입효과를 극대화 할 자족형 부도심으로 조성할 것이다. 2010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개통과 역세권 개발은 울산의 제2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의 인구감소 및 산업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울산광역시로 이전할 11개 공공기관이 결정되었다. 울산광역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에너지 기능, 노동·복지기능, 기타기능으로 나뉘어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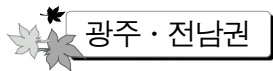
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노동부종합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공단, 국립방재연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포함되었다. 이들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내에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 IWC 총회 개최

제57차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57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가 2005년 5월 27일에서 6월 24일까지 울산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울산광역시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나타나듯이 선사시대 이전부터 고래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도시이며, 1962년 귀신고래의 회유해면인 동해안 앞바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래전진기지인 장생포함이 입지하는 등 과거부터 고래와의 연관이 높은 도시이다. 총 57개국, 800여명의 정부대표와 과학자, NGO, 언론 등이 참석하여 고래자원의 보존과 포경산업의 발전방안, 고래자원조사연구평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자연생태계의 보존과 선택적 개발을 주요 의제로 하는 IWC회의 개최로 울산의 기존 이미지인 공해·산업도시에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이미지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전국체전 개최

제86회 전국체육대회가 2005년 10월 14일에서 10월 20일까지 『다함께 울산에서, 더 멀리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각 시·도 및 해외지부의 임원 5천여명과 선수 2만5천여명 등 총 30,000여명이 참가하여 총 41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친다. 전국체육대회는 평화와 화합의 축제가 되고 울산지역의 환경, 문화 등 울산을 바로 알려 울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1등 광주 건설 5개년 계획’ 발표

광주시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지역경제 발전과 아시아 문화수도로서의 위상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1등 광주’를 건설하기 위한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도약, 매력있는 도시 창출, 따뜻한 복지 공동체 구현, 미래 지향 도시공간 조성 등 5개 분야 15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1등 광주 건설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2009년까지 3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8,489억원), 4대 전략산업 성장 기반 구축(2,431억원), 5대 신기술 응용산업 육성(3,733억원), 7대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센터(1,704억원), 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허브 도시 육성(4,770억원) 등 지역 성장 동력 확충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2조1,167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5,264억원, 문화복합단지 건설(기반시설 조성) 5,320억원 등 총 1조584억원을 들여 광주 문화수도를 견인할 대형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또 광주 국제 청소년 음악제 등 5대 국제행사 창설(1,925억원), 비엔날레 등 기존 5대 축제 세계화(382억원), 어등산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 등 서남권 관광거점도시 도약(6,535억원), 문화예술 꿈나무 양성 등 문화르네상스 운동 전개(2,126억원) 등 광주 문화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5대 프로젝트도 마련했다.

동시에 1천만주 식재 등을 통한 21세기 푸른 광주 건설, 품격있는 건축디자인 도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름다운 광주 만들기, 홈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유비쿼터스 디지털 공동체 실현,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복지체제 완비를 통한 따뜻한 광주 만들기 등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5대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전남 신 도청 청사 6월 완공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에 건립중인 전남 신도청 청사(2001년 12월 着工)가 현재 건물골조 공정 완료 등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6월말 완공되었다.

총사업비 1,687억원이 투입될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3층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건설되며, 행정동과 의회동 등으로 나누어 건설된다. 동북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신청사는 금년 상반기까지 건물 내부와 기계·통신분야 등의 시설 등을 완료한 뒤 7월부터 3개월 동안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을 가질 계획이다. 전남도는 신청사 시운전이 끝나는 10월께 입주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신도청 청사가 들어서는 남악신도시는 목포시 옥암·석현동과 무안군 삼향면·일로읍 일원 440만평에 인구 15万名 규모로 2019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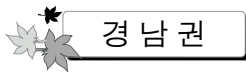
#### 전남 슬로건 '녹색의 땅 전남' 선정

전남도가 도민의 의지를 모아 지역의 밝은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찬 전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모했던 전남 슬로건으로 '녹색의 땅 전남'(Green Jeonnam)이 최종 선정되었다. 금번 슬로건은 지난 4월부터 1개월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해 총532건이 접수돼 브랜

드마케팅과 관광문화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전남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심사와 도민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녹색의 땅 전남(Green Jeonnam)’은 깨끗한 전남의 자연경관과 친환경지역, 그린투어리즘 등을 표현하면서 자연과 문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지향하는 미래 전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타 시도와 달리 한글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영문은 부기로 사용해 의로운 땅 전남에 대한 애향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후 각종 문건, 책자 등 홍보용품에 슬로건을 게재하고, 공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수록, 차량표시, 플래카드, 명함 등 행정 내부적으로도 이를 적극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하반기에도 금번 선정된 슬로건의 디자인 공모와 서체개발,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도정 마케팅에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 람사총회2008 국내에서 경남으로 결정

경남도에서는 환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람사총회를 유치하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NGO 등과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로 유치할 경우 국내에서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를 두고 경남도와 부산시는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 왔다. 지난 6월 28일에 열린 “2008년 람사총회 선정위원회”는 유치도시로 신청한 경남도와 부산시가 제출한 유치계획서와 유치설명 평가결과, 2008년 람사총회 국내 개최후보도시로 경남을 최종선정하였다. 환경부 선정위원회는 외교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 4명, 습지관련 교수·전문가 4명, 환경단체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최여건·개최능력·유치노력 등 모두 11개 항목에 걸친 평가를 통해 경남을 국내 개최후보도시로 최종 선정하였다. 경남도는 이번 개최후보도시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지난 2002년 2월 발족한 마·창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주축인 된 람사총회 유치 민간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유치활동 전개와 경남도는 20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경남도정 10대 주요시책으로 선정하는 등 노력의 결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구성된 “경남도 람사총회 유치위원회”와 지난 2월 1일 가진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등을 통해 경남 유치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2008년 람사총회 개최국가 선정은 오는 11월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되는 제9차 람사총회에서 최종결정된다.

## 람사총회2008 국내에서 경남으로 결정

경남도는 남해안을 접해 있는 지경학적 우수성을 살린 남해안시대 구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국가균형발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새로운 대응축으로 환남해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지향적 해양경제시대에 부응하여 내륙중심의 국토 개발 방향을 해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동북아의 해양지역 중심으로 세계경제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국가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남해안지역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중심지로 부상시켜 우리나라의 해양 경제대국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남해안에 접해 있는 부산·전남과 공동으로 남해안발전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남해안시대 구상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 제주도

### PATA 등 국제회의 현황

2004년도 제주지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총회,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 총회 등 굵직굵직한 대규모 국제행사 16건이 잇따라 개최돼 지역경제활성화와 국제적인 위상 강화 등의 효과를 창출했다.

지난 4월 19~21일 3일간 열린 제53차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연차총회에는 48개국 2,275명이 참가, 지난 51년 총회시작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회의로 기록됐다. 또한, 5월 31일부터 5일간 열린 제37차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에는 63개 회원국 중 61개국에서 장관급 40명을 포함해 3,00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10월 26~28일의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차 세계한상대회는 국외 42개국 964명과 국내 360명 등 모두 1324명 참가했다. 이처럼 대규모 국제회의가 잇따라 개최되면서 지역경제의 직접 파급효과만도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대외 홍보 및 국제 위상 강화는 물론 '평화의 섬'이미지 향상 등에도 큰 효과를 창출했다.

### 제주 세계 골프무대 부상

스포츠는 산업으로 당당히 대접을 받는다. 제주도에서 최근 국제규모의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스포츠는 관광과 감귤에 버금하는 산업으로 급성장했다. 2004년 도내에서 각종 스포츠가 열렸지만 가장 주목을 끈 종목으로 골프를 꼽을 만하다. 세계 골프계를 주름잡는

톱 랭커들이 줄줄이 제주를 방문하는 등 그야말로 제주도가 골프의 최적지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골프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올해로 3년째를 맞는 CJ 나인브릿지 클래식을 빼놓지 못한다. 이 대회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공식대회로 국내·외에서 활약하는 골프 퀸들의 경연장이 됐다. 특히, 11월에는 ‘골프황제’로 불리는 우주(미국)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우주의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건이었다. 우주는 라온골프장에서 열린 MBC-라온 인비테이셔널 대회에 출전, 갤러리들을 몰고 다녔다. 미국프로골프(PGA) 1989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양권에서 개최됐다는 PGA 투어 신한코리아골프챔피언십도 제주도의 위상을 읽게 만든다.

이런 국제대회 개최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 창출과 함께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UNEP총회 성공개최 ... 제주컨벤션산업 급부상

제주도가 동북아 대표 ‘리조트형 컨벤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5차 지구시민사회포럼(GCSF)과 유엔환경계획(UNEP) 제8차 특별총회 및 지구환경장관 포럼을 통해 제주는 아름다운 경관과 최적의 회의시설을 갖춘 회의 도시로 한 획을 긋게 됐다.

이번 UNEP 특별총회 제주 개최는 ‘아시아에서는 처음’ ‘158개국·1,200여명 참석, 역대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 외에도 국제회의 중 엄격한 회의절차와 까다로운 회의장 시설을 요구하는 UN장관급 회의라는 점에서 준비 과정부터 관심을 끌었다.

총회가 열린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동안 공식·비공식을 포함 10차례가 넘는 회의가 진행됐다. 물론 회의 결과 ‘제주 선언(Jeju Initiative)’을 채택, 제주를 세계적 환경 도시로 부각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의 아름다운 조화는 분쟁·갈등으로 점철된 전 세계 수십억 인구들에 대해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하는 장기적 목표와 일치하는 곳”이라고 극찬했던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총장은 폐회식 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보여준 철저한 준비와 환대에 감사한다”는 말로 ‘컨벤션 제주’를 평가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바다와 산을 볼 수 있는 환경친화적 구조와 잘 정돈된 회의장 시설 등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고, 기술적으로 훌륭한 회의 시설에 대해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국가에서부터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는 의견까지 나왔다.

이 기간 동안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2005년 총회 제주 유치에 한 걸음 가깝게 접근한 것이나 향후 국제환경회의 유치 기반을 마련한 것 역시 국제적

회의 도시로의 제주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

회의 참가자 경비 24억원을 포함해 27~31일 ICC제주에 설치된 현장 환전 코너를 통한 환전실적만 358명·12만6649달러, 우리 돈으로 1억5200만원에 이르는 등 ‘굴뚝 없는’ 컨벤션산업이 제주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 3. 제13회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 개최

제13회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지사 교류회의가 2004. 11. 8~11. 10(2박 3일)간 경상남도 창원시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오카현, 사가현, 야마구치현, 나가사키현의 4곳 지사와 한국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의 시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지역주민 언론인 등 100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진행은 각 지사 등이 각각 메시지를 발표 한·일의 국제교류시책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실무자회의에서는 보다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고, 시도현 등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안이 되었다.

#### 《전라남도 박준영지사》

- 역점시책 소개
  - 국제적인 해양레저 복합도시 건설
  - 동북아 물류·교역의 거점 구축
  -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
- 공동교류사업 신규제안
  - 한·일 해협 연안 관광 심포지엄 개최  
(광역관광협의회사업의 일환 : 교수, 관광협회 관계자 등이 관광산업 발전방안 논의)

#### 《부산광역시 허남식시장》

- 역점시책 소개
  - 지역 특성을 살린 경제중심의 시정운영
  - 국제화를 위한 세계도시의 시정운영
  - 2005 APEC 개최
- 공동교류사업 신규제안
  - 공동 방재분야 교류 활성화  
(자연재해 대비 상호 정보교환과 방재시스템 협력)

#### 《제주도 김태환 지사》

- 역점시책 소개
  -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추진



- 공동교류사업 추진현황 소개
- 공동교류사업 신규제안
  - 공립 또는 민간 친선 문화예술공연단 교차공연

《경상남도 김태호지사》

- 역점시책 소개
  - 경남의 투자환경
  -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
  - KIMEX 2004의 성공적 개최
- 공동교류사업 신규제안
  - 민간단체(NGO) 참가 확대(환경, 복지우선)

《후쿠오카현 아소 와타루지사》

- 역점시책 소개
  - 국민문화재 사업 추진, 규슈 국립박물관 준공
  - 21세기 성장산업육성(IT산업, 자동차산업, 벤처 마켓, 로봇, 나노기술, 수소에너지 개발 등)
- 공동 교류사업 추진현황 소개(4개 사업)
  - 청소년 홈스테이사업, 환경기술교류, 전통공예교류, 한일교류사이해촉진사업
- 공동교류사업 신규제안
  - 2005 아이치 박람회 기간(2005. 3월~9월) 이후에도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화 추진

《사가현 후루카와 야스시지사》

- 역점시책 소개
  - 아시아의 할리우드 구상(영상문화 선도)
  - 남·녀 공동참가 사회 조성
  - 나고야성 박물관을 한·일문화, 학술의 거점  
(되살아나는 영광의 백제 무녕왕과 그 시대전 개최)

《야마구치현 니이 세키나리 지사》

○ 역점시책 소개

- 재정개혁, 시정촌 합병 진전
- 쓰레기 자원화, 미이용 자원의 활용, 국제교류, 국민문화제

《나가사키현 시라하마 시계하루 출납장》

○ 역점시책 소개

- 현정 기본방침
- 한국관련 시책소개
  - 부산 ↔ 대마도 국제항로(씨 플라워호)
  - 나가사키 ↔ 부산 컨테이너항로 이용 촉진
  - “대마도 아리랑 축제”, “대마도 친구 음악제”

○ 공동교류사업 신규제안

- 일본방문 한국인 노비자화 추진